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과 러시아어의 대응 구문 연구*

김 연 수**

목 차

- 서 론
-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특성
-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과 러시아어 대응 구문
- 결 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과 이에 대응되는 러시아어 구문의 통사적, 형태적, 의미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를 기술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언어에 속하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문장의 주어가 표현되는 양상도 그 중의 하나이다. 한국어는 한 문장에서 하나의 서술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문장 성분이 주격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널리 사용된다. 이런 유형의 문장을 '이중주어 구문' 또는 '주격중출 구문'이라 한다. 이중주어 구문은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며,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및 타언어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본 논문은 속성 표현 구문, 소유 구문, 심리 형용사 구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 유형의 구문들이 주어와 보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통사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되는 러시아어 구문을 형식화하여 제시한다. 두 언어의 문형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의미 구조를 문장으로 형식화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는 문장의 의미 구조를 통사적으로 실현할 때 '주어+보어+서술어'의 구성을 갖춘 형식적인 완결성을 보인다. 이에 비해 러시아어는 문장 성분들이 의미역 구조를 반영하여 형태-통사적으로 실현되는 형식을 취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49490)

**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특임강의교수

I. 서론

서로 다른 유형의 언어에 속하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문장의 주어와 표현되는 양상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주격 표시된 단어가 문장의 주어와 되는 것이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다. 한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가 부가된 단어가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고, 러시아어에서는 주격 형태의 단어가 문장에서 문법적 주어의 지위를 차지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 예문을 살펴보자.

- (1) a. 안톤이 책을 읽는다.
- b. 이 방이 크다.
- c. 안나는 책이 있다.

- (2) a. Антон читает книгу.
- b. Эта комната большая.
- c. У Анны есть книга.

위의 예문 (1)에서 ‘안톤’, ‘방’, ‘안나’는 모두 주격 조사 ‘이/가’가 붙은 단어로 문장의 주어이고,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사용된다. 이에 대응되는 러시아어 문장 (2a, b)에서 주어는 주격으로 나타난 ‘Антон’, ‘комната’이다. 그런데 주어 명사가 주격으로 쓰인 (1c)의 “안나는 책이 있다”와는 달리 (2c)에서는 주격 명사 ‘книга’가 문법적인 주어이지만 의미적인 주어는 ‘у Анны’(전치사구)이다. 러시아어에는 문장에 주격 주어와 없거나 쓰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3) a. Мне холодно. (나는 춥다.)
- b. Меня тошнит. (나는 속이 메스껍다.)
- c. Мне снилось. (나는 꿈을 꾸었다.)

(3)의 러시아어 문장에서는 주격 명사가 나타나지 않고 ‘мне’(여격), ‘меня’

(대격)가 의미적으로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경우 주격으로 표현되는 문법적 주어가 없고 동사는 3인칭 단수 중성형태로 쓰이는 무인칭문 구조를 갖는다. 문법적 주어가 없는 무인칭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4) a. На улице было тихо.

b. Здесь темно.

(5) a. 거리가 조용했다.

b. 여기가 어둡다.

c. *거리에 조용하다.

d. *여기에 어둡다.

(4)에서 부사 ‘тихо(조용하다)’와 ‘темно(어둡다)’는 장소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구 ‘на улице’와 부사 ‘здесь’와 함께 쓰여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4)의 내용을 표현하는 한국어 문장 (5)는 명사 ‘거리’와 대명사 ‘여기’에 주격 표지 ‘가’가 붙어 문장의 주어로 쓰여 [주어+서술어] 구조를 갖는다. ‘거리’와 ‘여기’에 처소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쓰인 (5c)와 (5d)는 비문이다. 이처럼 러시아어와 달리 한국어는 의미적인 주어와 문법적인 주어가 둘 다 주어 표지를 가져서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또한 한국어는 조사 없이도 어순, 동사의 의미구조와 활용형 등에 의해 문장 내에서 단어의 문법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는 문장에서 격이 외현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철수 너 좋아해”, “너 이 책 철수 줘라”, “밥 먹었니?”, “영희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만났대”에서 명사가 격을 나타내는 조사 없이 사용되어도 통사 기능과 의미 역할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이런 문장들이 문법적으로도 비문이 아니다. 조사 없이 쓰인 명사들이 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현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문장에서 동사와 일정한 통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 격의 개념을 문장에서 단어가 서술어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때, 한국어 격조사의 기능이 격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격을 표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이에 비해 형태론적으로 굴절어 유형인 러시아어는 단어의 형태적인 격변화형에 의해 통사적 기능이 표현된다. 명사가 문장에서 격 없이 표현될 수 없다. 모든 명사를

사전 표제어 형태로 써서 “Передай эта книга Виктор”나 “Сегодня Анна видела учитель в школа”라고 하더라도 명사 эта книга, Виктор, Анна, учитель은 주격이고, 주격은 문장의 문법적 주어를 표현하는 격이므로 이 문장들은 모든 명사가 주어로 표현되어 비문이다.

형태적으로 정교하게 확립된 격 패러다임을 갖는 러시아어는 주격 표지를 갖는 단어가 문법적인 주어 역할을 하며, 하나의 서술어에 대해 주격으로 표지되는 문장성분을 하나만 허용한다. 그런데 한국어는 하나의 서술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문장성분이 조사 ‘이/가’가 붙어 쓰여서 마치 문장에 주어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구문이 널리 사용된다.¹⁾

- (6) a. 코끼리가 코가 길다.
 b. 민수는 영화가 좋았다.
 c. 너는 개가 무섭니?
 d. 그녀는 철수가 불쌍했다.
 e.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f. 그는 속이 메스꺼웠다.
 g.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h. 별이 빛이 난다.
 i. 친구가 셋이 왔다.
 j. 영화가 좋은 차가 있다.
 k. 철수가 배가 아프다.

이런 유형의 구문을 ‘이중주어 구문’, ‘중주어 구문’ 또는 ‘주격중출 구문’이라 한다.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 유형의 구문이 실제로 두 개의 주어 또는 두 개의 주격 명사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에서 ‘코끼리’와 ‘코’에 조사 ‘이/가’가 붙어서 주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주격

1)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 ‘이/가’는 주격 조사로 분류되고 ‘은/는’은 보조사로 분류된다. 보조사 ‘은/는’의 기능 중의 하나는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topic)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SOV 어순 유형에 속하는 한국어는 주어가 주요 성분들 중 가장 앞에 위치하고, 어떤 성분이 화제화(topicalization)되면 문두로 이동한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이면서 화제어인 단어가 문장의 첫 위치에 오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가 붙은 주어와 보조사 ‘은/는’이 붙은 화제화된 주어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인지, 둘 다 문장의 주어인지에 대해 학계에서 오랜 기간 연구의 대상이었지만 현재까지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처럼 이중주어 구문은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할 때나 한국어 문장을 외국어로 옮길 때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²⁾ 따라서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과 이에 상응하는 러시아어 대응 구문의 통사적, 형태적, 의미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를 기술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러시아어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적, 의미론적 구조를 밝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개념에 기반한 언어학적 논의보다는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과 러시아어 대응 표현의 기본 문형을 설정하고 두 언어 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둔다.

II.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특성

1.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 구조

이중주어 구문은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통사적인 측면에서 논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사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것인데 이중주어 구문이 단문인가 복문인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또 하나는 이중주어 구문에서 주격으로 나타나는 두 명사구의 통사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NP_1 + NP_2 + VP]$ ³⁾ 구문에

2) 이중주어 구문 또는 주격중출 구문은 어순 유형이 SOV인 언어들에서 관찰되고 SVO 유형의 언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V 유형의 언어들 중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언어에서 주격중출 현상이 있다. Li & Thompson(1976:480)을 참조하라.

3)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NP_1 + NP_2 + VP]$ 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NP_1 은 첫 번째 명사구, NP_2 는 NP_1

서 첫 번째 명사와 두 번째 명사 중 어느 것이 주어인지, 두 명사구가 모두 주어인지, 둘 중 하나만 주어라면 나머지 하나는 통사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주요 쟁점을 개관하고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최적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하겠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과 그 대응 표현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구문 유형을 형식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이중주어 구문이 두 개의 주어와 두 개의 서술어를 갖는 복문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주어를 하나 갖는 단문 구조로 보는 것인데, 이 경우 두 명사 중에서 어느 것이 문장의 주어인지에 대해 연구자마다 시각이 다르다. 이중주어 구문을 복문으로 보는 시각은 학교 국어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술절설이다. 전통적인 학교문법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을 서술절을 내포한 복문으로 분석한다. “철수가 눈이 크다”에는 서술절 ‘눈이 크다’가 전체 문장에 내포되어 있다. 내포된 서술절 ‘눈이 크다’의 주어는 ‘눈’, 서술어는 ‘크다’이고 전체 문장의 주어는 ‘철수’, 서술어는 ‘눈이 크다’이다. 즉,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서술절이 되어 전체 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중주어 구문을 서술절 내포문으로 분석하면 한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 나타나는 복문 구조를 갖는다. 문장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7) a. [철수가 [눈이 크다]]

b. [NP_{1-subj1} [NP_{2-subj2} VP]_{predP(=S)}]s

이러한 시각은 서술절을 설정함으로써 표면상 두 개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문장을 하나의 절에 하나의 주어가 있다는 보편문법의 원리를 따른 구조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절 개념이 이론적으로 타당한가, 완전한 형식을 갖춘 문장이 아무런 변형이나 형태적 또는 통사적 장치 없이 그대로 다른 문장에 내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다. 이 구문을 한국어만의 독특한 구조로 본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구조가 가능하

뒤에 쓰이는 명사를 표시한다. 이중주어 구문의 서술어로 동사와 형용사가 나타나지만 편의상 모두 VP로 나타낸다.

고 불가능한지를 기술하고, 이 유형의 구문에 사용될 수 있는 어휘 목록과 어휘들 간의 의미적 관련성에 대한 상세한 분류와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범언어적으로 이중주어 구문 또는 주격중출 구문이 나타나는 언어가 매우 희소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일반적인 구문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 여겨진다.

이중주어 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NP₁과 NP₂의 통사적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명사구를 모두 주어로 보는 관점과 하나만 주어로 보는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대소주어설은 이중주어 구문이 두 개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를 갖는 단문이라고 본다. 두 개의 주어 NP₁과 NP₂ 사이에는 어떠한 의미 관계가 있는데, NP₁과 NP₂는 개념적으로 대소관계를 이루어 NP₂가 NP₁에 의미적으로 비대칭적인 내포 관계에 있다고 본다.⁴⁾ “철수가 눈이 크다”, “손님이 세 명이 왔다”, “꽃이 장미가 예쁘다”에서 ‘철수’, ‘손님’, ‘꽃’은 대주어 또는 총주어이고, ‘눈’, ‘세 명’, ‘장미’는 소주어이다.

(8) a. [[철수가 눈이] 크다]

b. [[NP_{1-subj1} NP_{2-subj2}] VP]_S

대소주어설은 이중주어 구문의 두 명사구 사이에 어떤 특정한 의미 관계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으나, NP₁와 NP₂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왜 두 명사구가 모두 주격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다양한 의미 유형의 이중주어 구문 전반에 대해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나는 영희가 좋다”, “나는 이 방이 마음에 든다”, “철수는 영희가 불쌍했다”와 같이 NP₁과 NP₂ 사이에 비대칭적인 내포 관계가 없는 이중주어 구문에 대해서는 대소주어 관계를 적용할 수 없다.

이중주어 구문을 하나의 주어를 갖는 문장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주제설, 변형설, 보어설 등이 있다. 주제설은 이중주어 구문에서 NP₁과 NP₂가 주제(topic)와 평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조사 ‘은/는’이 붙어 나타나는 NP₁이 문장의 주제이고, ‘이/가’가 붙어서 쓰이는 NP₂가 문장의 주어로서 평언의 일부라고

4) 양인석(Yang, I. 1972)은 두 명사구 사이의 대소 관계를 (1) 전제-부분, (2) 부류-일원, (3) 유형-사례, (4) 총계-수량, (5) 피영향자-영향자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정수(2013, 180)를 참조하라.

본다. 문장의 주어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의미적, 통사적 관계를 갖지만 주제어는 그렇지 않다. 즉 주어는 서술어와 선택 관계에 놓이지만 주제는 서술어가 아닌 평언과 상관관계를 이룬다. ‘커피는 잠이 안 온다’에서 서술어 ‘안 온다’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주어는 ‘잠’이고, ‘커피’는 서술어의 의미 구조와 관련이 없는 외부의 요소로서 이 문장의 주제어 역할을 한다.⁵⁾

- (9) a. [커피는 [잠이 안 온다]]
 b. [[NP_{1-topic} [NP_{2-subj} VP]_s]_s’

주제설은 대소주어설이나 다른 접근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커피는 잠이 안 온다”와 같은 유형의 문장을 담화 층위의 주제 개념을 도입해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 역시 모든 유형의 이중주어 구문에 대해 설명력을 갖지는 못한다.

- (10) a. 영수가 손이 크다.
 b. 영수는 손이 크다.
 c. 손은 영수가 크다.

위의 세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모두 동일하고 통사 층위의 문법 관계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10b) “영수는 손이 크다”에서 ‘영수’가 주제어이고 ‘손’이 주어라면, (10c) “손은 영수가 크다”에서 ‘손’은 주어이면서 주제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영수’의 통사적 지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외형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는 “나는 잠이 안 온다”, “커피는 잠이 안 온다”, “나는 커피는 잠이 안 온다”를 비교할 때 ‘커피는’과 ‘나는’의 지위가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주제설의 접근법이 통사적 층위의 요소인 주어와 화용론적 층위의 개념인 주제를 같은 층위에서 논하고 있으며 한국어

5) 서정수(2013)는 이중주어 구문은 두 명사구가 각각 ‘이/가’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이 표지가 ‘은/는’으로 대체되어 나타나더라도 이중주어 구문으로 인정된다. ‘이 책이 내용이 좋다’와 ‘이 책은 내용이 좋다’는 이중주어 구문이다. 그러나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와 ‘?내가 호랑이가 무섭다’, ‘노래는 아리랑이 유명하다’와 ‘?노래가 아리랑이 유명하다’의 경우는 ‘은/는’이 ‘이/가’로 대체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와 ‘노래는 아리랑이 유명하다’는 이중주어문이 아니라 주제화된 문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장에서 주제와 주어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밥은 철수가 한다”, “학교는 영희가 다닌다”처럼 주어 이외의 성분도 주제화되어 주제 표시 ‘은/는’이 붙어서 문두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커피는 잠이 안 온다”와 같은 문장은 기본 문형으로서의 이중주어 구문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이중주어 구문의 주어는 NP₁이고 NP₂는 VP와 함께 동사구(서술구)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NP₂는 VP의 내부 논항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룬다.

- (11) a. [영희는 [눈이 예쁘다]]
 b. [[NP_{1-subj} [NP₂ + VP]_{VP}]

이중주어 구문의 서술어로 사용되는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 유형이 다양하며 NP₂와 VP의 관계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다. “영희는 눈이 예쁘다”,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영희가 돈이 많다”와 같은 구문에서 NP₂와 VP의 내적 관계를 ‘주어-서술어’ 관계로 보기도 하고, ‘보어-서술어’ 관계 또는 ‘목적어-서술어’ 관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안명철(2001)은 NP₂와 VP가 ‘주어-동사’의 내적 구성을 가지는 구-동사(phrasal verb) 또는 복합 서술어로서 한 단위를 이룬다고 본다. 이 구-동사가 하나의 형태론적 단위로 재구조화되어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별들이 빛이 난다”에서 ‘빛이 난다’는 내적으로 ‘주어-동사’의 구성이지만 이것이 한 단위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여 ‘별들이’가 이에 대해 주어로 기능한다. 이 때 내적으로 ‘주어-동사’의 관계에 있는 구-동사 ‘빛이 난다’가 복합어 ‘빛나다’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중주어 구문의 모든 NP₂와 VP가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NP₂와 VP의 내적 관계를 ‘주어-동사’ 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영희는 눈이 예쁘다”에서 ‘눈이 예쁘다’는 ‘눈예쁘다’로 재구조화될 수 없고, “나는 민수가 좋다”에서 ‘민수’와 ‘좋다’는 ‘주어-동사’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민수좋다’처럼 하나의 단위로 재구조화될 수도 없다.

이중주어 구문의 유형이 다양하고 의미적, 통사적 성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중주어 구문에 대한 기존의 어떤 이론도 모든 유형의 이중주어 구문을 동일

한 구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이 두 개의 논항이 실현된 단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본다. 이중주어 구문의 주요 의미 유형을 검토하고 러시아어 대응 구문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와 러시아어 구문의 비교 분석을 통해 두 언어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2.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적 유형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주요한 의미적 특징 중의 하나는 서술어가 비행위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동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성(action) 서술어는 수량 명사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중주어 구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중주어 구문에는 과정성(process)과 상태성(state)을 나타내는 일부 용언만 서술어로 사용된다. 의미적 관점에서 주격중출이 일어나는 구문을 서술어의 의미 특성, 그리고 NP₁과 NP₂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몇 가지 기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주어 구문을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는 예들을 의미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2)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 유형

(가) 속성 구문(비분리성 소유 구문)⁶⁾

- a. 코끼리는 코가 길다.
- b. 영희가 손이 크다.

(나) 분리성 소유 구문

- a. 영희가 책이 많다.
- b. 민수는 여동생이 있다.

(다) 심리 형용사 구문

- a.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 b. 영희는 철수가 좋았다.

6) 이러한 유형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비분리성 소유 구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구문이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속성’을 표현한다는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 ‘속성 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철수는 집이 크다’의 ‘철수’와 ‘집’의 관계처럼 분리가능한 소유나 소속 관계도 이 유형에 포함한다.

- (라) 피동 구문
- a. 나는 네가 보인다.
 - b. 철수가 팔이 부러졌다.
- (마) 기능동사 구문
- a. 아기는 잠이 왔다.
 - b. 별들이 빛이 났다.
- (바) 명사 술어 구문
- a. 철수는 군인이 아니다.
 - b. 물이 얼음이 되었다.
- (사) 양화사 구문
- a. 학생이 세 명이 왔다.
 - b. 책이 두 권이 있다.

위에 예시된 문장들은 주어처럼 보이는 단어를 두 개 가진 문장이다. (바)는 학교 문법에서 보어 구문으로 분류되는 유형이고⁷⁾ (사)는 양화사가 사용되는 구문이다.⁸⁾ 본 논문에서는 위의 유형들 중 속성 구문, 소유 구문, 심리 형용사 구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중주어 구문의 러시아어 대응 구문을 살펴 보기 전에 먼저 이중주어 구문의 유형별로 NP₁과 NP₂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사구의 주어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중주어 구문에서 주어가 무엇이고, 해당 유형의 구문이 표현하는 의미 구조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그리고 통사적으로 정확한 대응 구문을 형식화하여 제시하기 위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7) 주격 조사 ‘이/가’와 보격 조사 ‘이/가’는 형태가 같다. 보격 조사 ‘이/가’는 보어를 필수 논항으로 갖는 형용사 ‘아니다’와 동사 ‘되다’가 서술어인 경우에만 쓰인다.

8) 양화사 구문에 대해서는 NP₁과 NP₂를 동격 관계로 보는 시각, 서술절 내포문의 한 유형으로 보는 입장, 소절 구성으로 보는 입장, 주어를 보충하기 위한 부가어로 보는 입장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박지순(2019)은 NP₂에 ‘이/가’가 쓰이지 않아도 무방한 점, NP₂가 ‘학생이 셋이 많이 왔다’처럼 부사어 ‘많이’에 대응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NP₂를 부가어로 본다. 목정수(2023)는 ‘학생이 세 명이 왔다’는 ‘학생이’ 주어이고 ‘세 명이’ 성분은 분류사구로서 일종의 부사어구를 이루는 구문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유형의 구문을 주어가 하나인 자동사 구문으로 본다. 서정수(2013)는 수량어가 주어인데 사물 이름에 주격 표지가 임의로 개입하여 주격이 두 번 나타난 것일뿐 이중주어 구문이 아니라고 본다.

Ⅲ.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과 러시아어 대응 구문

1. 속성 형용사 구문

[NP₁가 NP₂가 서술어(속성 형용사) 유형

“영희가 손이 작다”, “이 집이 천정이 높다” 유형의 구문은 ‘크다, 작다, 길다, 짧다, 예쁘다, 파랗다’ 등 대상의 속성을 기술하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된다.⁹⁾ 속성 구문은 의미적 측면에서 1) 속성을 표현하는 서술어(‘작다’), 2) 속성의 대상(NP₂ ‘손’), 3) 이 대상이 귀속되어 있는 소유주/치소(NP₁ ‘영희’)의 세 가지 의미 성분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의미적으로 NP₁과 NP₂가 ‘전체-부분’의 관계에 있으며 NP₁과 NP₂ 사이에 소속 관계가 성립하므로 NP₁은 소유주(Possessor) 의미역을 갖고 NP₂는 해당 속성이나 특성이 기술되는 대상이므로 대상(Theme) 의미역을 갖는다.¹⁰⁾

통사적 측면에서 두 개의 주어처럼 보이는 명사 NP₁과 NP₂ 중에서 문장의 주어는 무엇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적 지위가 무엇인지 논의해 보자. 변형생성문법의 관점에서 “민수는 손이 크다”가 “민수의 손이 크다”라는 한 자리 서술어 구성에서 주제화에 의해 도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손’이 주어이고 ‘민수’는 주제어(topic)이다.¹¹⁾ 그러나 “민수는 손이 크다”가 주제화에 의해 도출된 구문이라면 “민수가 손이 크다”의 ‘민수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NP₁-는 NP₂-가 VP] 구성이 NP₁이 속격으로 나타나는 [NP₁-의 NP₂-가 VP] 구문과 항상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 (13) a. 이 식당이 국수가 맛있다.
 b. 이 식당의 국수가 맛있다.
 c. 나는 가방이 문 손잡이에 걸렸다.
 d. 나의 가방이 문 손잡이에 걸렸다.

9)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성상 형용사에는 대상의 속성을 기술하는 객관성 형용사와 화자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주관성 형용사가 있다.

10) 본 논문에서는 큰 범위에서의 치소역의 하위 부류로 소유나 소속관계의 주체가 갖는 의미역을 소유주로 표현한다.

11) 유현경(2021)은 담화 층위의 화제(discourse topic)와 통사 층위의 주제어(sentence topic)를 구별한다. 이에 따르면 ‘철수는 발이 크다’에서 문장의 주어는 ‘발’이고 ‘철수’는 통사 층위의 주제어이다.

속격 구조를 갖는 (13a)는 억양과 휴지(pause)에 따라 “이 식당이 여러 음식 중에서 국수를 맛있게 한다”로 해석될 수도 있고 “여러 식당 중에서 이 식당에서 파는 국수가 맛있다”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13b)는 후자의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다. (13c)는 내가 가방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방이 문 손잡이에 걸린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지만, (13d)는 그런 제한이 없다. 이처럼 심층구조에서 변형에 의해 도출되었다고 보면 이런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문장의 통사 구조는 의미 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수가 손이 크다”와 “민수의 손이 크다”는 화용론적으로 발화의 의도가 다르다. ‘민수가’로 시작하는 문장은 서술의 내용이 ‘민수’에 대한 것이고, ‘민수의 손이’로 시작하는 문장은 ‘손’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이중주어 구문의 경우 주어와 주제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한국어는 주어가 문장의 통사적 주어인 동시에 주제어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입장을 교육 현장에 수용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NP₁을 주어로 보는 시각을 따른다. NP₁이 문장의 주어 자리인 문두에 있다는 것 외에도 전형적인 주어가 보이는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주어를 검증하는 방법 몇 가지를 활용하여 이중주어 구문의 주어가 NP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첫째, 관계관형화 변형이다. “민수가 방에서 쉬고 있다”를 ‘방에서 쉬고 있는 민수’로 관계화할 때 주어 ‘민수’가 관계화 구문의 머리어가 된다. ‘민수가 쉬고 있는 방’으로 변형해도 ‘민수’는 관계화 구문 내의 주어이다. 이중주어 구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아래 예문들을 관계화할 때 NP₁은 관계화 구문의 머리어가 될 수 있지만 NP₂는 머리어가 될 수 없다.

- (14) a. 나는 죽음이 두렵다. → 죽음이 두려운 나 / *내가 두려운 죽음
 b. 철수가 경찰이 되었다. → 경찰이 된 철수 / *철수가 된 경찰
 c. 철수가 손이 크다. → 손이 큰 철수 / *철수가 큰 손
 d. 이 집이 천정이 높다. → 천정이 높은 이 집 / *이 집이 높은 천정

둘째,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의 호응이다. 존대 선어말어미 ‘-시-’는 문장

12) 우리말의 주어 검증법에 대해서는 유현경(2005), 목정수(2016, 2023) 등을 참조하였다.

의 주어와 호응한다.

- (15) a. 이 분이 모임의 회장이시다.
 b. 할아버지께서는 호랑이가 겁나셨다.
 c. 내 동생이 선생님이 되었다. / *내 동생이 선생님이 되셨다.
 d. 선생님이 키가 크시다. / *선생님의 키가 크시다.

위의 (15a)와 (15b)는 NP₁ ‘이 분’과 ‘할아버지’가 ‘-사-’와 호응하고 있으므로 정문이다. (15c)와 (15d)에서 NP₁ ‘내 동생’과 ‘선생님’이 ‘-사-’와 호응하는 경우는 정문이지만 NP₂ ‘선생님’과 ‘키’가 ‘-사-’와 호응하는 문장은 어법에 맞지 않다.

셋째, 재귀대명사 ‘자기’와의 공지시 관계를 통한 검증이다.

- (16) a. 영희는 친구에게 자기_{i/*j} 그림을 선물했다.
 b. 어머니는 자식이 자기_{i/*j} 자신보다 더 소중하다.
 c. 민수는 철수_j보다 자기_{i/*j} 머리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d. 철수는 자기_i가 살던 집이 그리웠다.

위의 (16a)처럼 재귀대명사 ‘자기’는 문장의 주어와 공지시 관계에 있는데, 이중주어 구문의 NP₁이 ‘자기’와 공지시 관계에 있으므로 주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주어 진단법을 통해 이중주어 구문의 주어가 NP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영희는 손이 크다”에서 NP₁ ‘영희’를 주어로 보면 주어가 문두에 위치한다는 한국어의 어순 규칙에도 부합하는 문장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문이 다른 유형의 구문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갖는 특이하고 불규칙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문법 체계에 맞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 비모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통일성 있는 문형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NP₁이 주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NP₂의 통사적 역할이 무엇이나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목정수(2023)는 NP₂가 서술어와 ‘목적어-동사’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코끼리는 코가 길다” 류의 서술어 ‘길다’가 <X have long Y>의 논항 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어+가형목적어+서술어’의 구조를 갖는다고 본다.¹³⁾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이러한 유형의 구문이 일종의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듯 하다. 그러나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과연 “코끼리는 긴 코가 있다”와 같은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해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는 문장은 코끼리의 일부를 이루는 코의 속성이 ‘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코끼리의 일부인 ‘긴 코’의 소유/비소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코끼리는 코가 길다”의 반대는 “코끼리는 코가 길지 않다”이고, “코끼리는 긴 코가 있다”의 반대는 “코끼리는 긴 코가 없다”이다. 그러므로 NP₂와 서술어가 ‘목적어-서술어’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 보다는 ‘보어-서술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코끼리가 코가 길다” 유형의 문장에서 NP₂(‘코’)를 보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통 국어문법에서 말하는 보어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의 ‘얼음’과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다”의 ‘의사’처럼 ‘되다’, ‘아니다’ 앞에 보격 조사 ‘이/가’를 취하여 나타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그러나 전통문법에서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보어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보어의 범위를 ‘의미론적 필수 논항’으로 확대하여 보는 견해가 다수 등장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어를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수식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코끼리는 코가 길다”의 ‘코’와 “영희는 손이 작다”의 ‘손’을 보어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길다’와 ‘작다’ 등의 형용사가 하나의 논항을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손이 작다’와 ‘코가 길다’가 의미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며 따라서 보어가 필요치 않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의 수가 그 동사가 쓰이는 구문에

13) 목정수(2018, 2023)는 이중주어 구문의 NP₂와 VP의 관계를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코끼리는 코가 길다’, ‘민수는 돈이 많다’,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류의 이중주어 구문은 두 개의 논항이 실현된 ‘약성 타동 구문’이며, NP₁이 주어이고 NP₂가 ‘가형목적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문이다. ‘가형목적어’는 조사 ‘이/가’가 붙은 목적어를 말하는 용어이다. 그는 한국어가 ‘쪼개진 목적어(Split-O)’를 갖는 언어 유형이라고 본다. 전형적인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에는 조사 ‘을/를’이 붙고, ‘약성 타동 구문’의 목적어에는 조사 ‘이/가’가 붙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조사 ‘이/가’의 본질적인 기능이 격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다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이/가’를 주어 표지가 아니라 정보 구조의 흐름을 조정하는 데 관여하는 담화적 기능 요소로 파악한다.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러시아어 동사 **видеть**를 예로 들면, 타동사로서 주격 주어와 대격 목적어의 두 개의 필수 논항을 취하는 동사이지만, 하나의 논항만 취하는 자동사 구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17) a. Я вижу дом.
 b. Он плохо видит.
 c. Мы плохо видим в темноте.

위의 (17a)는 주격 주어와 대격 목적어를 갖는 타동문 구조를 갖는다. (17b)는 하나의 필수 논항만 갖는 자동문 구조이고, (17c)는 하나의 필수 논항과 처소를 나타내는 부가어를 갖는 자동문 구조이다. 이처럼 서술어의 결합가혹은 논항 구조는 문장의 의미 구조와 발화 의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형용사 ‘크다’ 류의 속성 형용사가 보어를 취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의 NP₁을 주어로, NP₂를 보어로 보아 “영희는 손이 작다” 유형의 구문이 [주어+보어+서술어]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학교문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국어의 어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문형이므로 외국어 교육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속성의 의미를 표현하는 “영희는 손이 작다” 유형의 이중주어 구문이 러시아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대응 구문을 생각해 보자. 이런 유형의 구문을 구성하는 세 개의 의미 성분들은 속성을 표현하는 서술어, 속성의 대상, 서술어가 표현하는 속성을 갖는 대상이 귀속되어 있는 소유주/소속주 또는 처소이다. 소유주(NP₁)는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 전치사구 ‘у + 생격’ 구문이 쓰인다. 속성이 해당 공간 내부의 속성을 표현할 때는 ‘в + 전치격’ 구문이 사용된다. 대상(NP₂)은 주격 명사구로 쓰여 문장의 문법적인 주어가 된다. 현재시제에서 **быть**의 현재시제형 **есть**는 사용되지 않는다.

- (18) a. У слона \emptyset длинный хобот.¹⁴⁾
 b. У неё \emptyset маленькие руки.

14) 본 논문에서 \emptyset 는 현재시제에서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есть**가 쓰이면 비문이다.

- c. У этого дома \emptyset красная крыша.
- d. В этой комнате \emptyset высокий потолок.

과거와 미래시제에서는 **быть**가 주격 표지된 NP₂에 성과 수에 있어서 일치된다.

- (19) a. У неё были маленькие руки.
- b. У этого дома была красная крыша.

속성을 표현하는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과 러시아어 대응 구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¹⁵⁾

[표 1] 속성 형용사 구문

언어	한국어		러시아어	
문형	[NP ₁ 가 NP ₂ 가 VP]		[У NP ₁ -생격 \emptyset NP ₂ -주격]	
명사구	NP ₁	NP ₂	NP ₁	NP ₂
의미역	소유주/처소	대상	소유주/처소	대상
통사 역할	주어	보어	상황어	주어
격표지	주격 (이/가, 은/는)	이/가	у + 생격 в + 전치격(내부)	주격
예문	코끼리가 코가 길다. 이 방은 천정이 높다. ↔~천정이 높지 않다.		У слона \emptyset длинный хобот. В этой комнате \emptyset высокий потолок. ↔~ \emptyset невысокий потолок.	

한국어와 러시아어 대응 구문을 비교하면 한국어는 NP₁의 의미역과 무관하게 주어가 주격 표지를 갖는다.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는 “영희가 방에서 책을 읽는다”에서와 같이 ‘에/에서’이지만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는 주격 조사가 붙어 ‘방이’ 형태로 쓰인다. 러시아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의미역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유주나 소속주는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 전치

15) 주격 조사는 ‘이/가/께서’가 사용되는데 대표형을 [NP₁가]로 나타낸다. 서술어로 사용되는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VP]로 나타낸다. 주격 조사는 ‘이/가’이지만 실제 문장에서는 주어에 주격화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어에 ‘은/는’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격 표지에 ‘은/는’을 함께 제시한다. 이 경우 ‘은/는’은 주격화된 주어에 나타낸다.

사구 ‘y + 생격’으로 나타나고, “이 방은 천정이 높다”처럼 어떤 공간 내부에 있는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B + 전치격’으로 표현된다. 두 언어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는 명사 논항이 문장의 형식적 구조 [주어+보어+서술어]에 맞게 주어는 주격 조사를, 보어는 보격 조사 ‘이/가’를 취함으로써 문장의 형식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러시아어는 문장이 의미 구조를 형식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소유 구문

[NP₁가 NP₂가 있다] 유형

‘영희는 책이 많다/적다’, ‘민수는 여동생이 있다/없다’ 유형의 구문에 사용되는 서술어는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등이다.¹⁶⁾ 소유 구문의 의미 구성 요소는 1) 소유를 표현하는 서술어 ‘있다’, 2) 소유주, 3) 소유물이다. NP₁과 NP₂는 소유주-소유물 관계에 있으며 NP₁과 NP₂ 사이에 소유/소속 관계가 성립하지만 속성 구문과는 달리 의미적으로 대소관계나 ‘전체-부분’ 관계에 있지 않다. NP₁은 의미역이 소유자이고 NP₂는 대상이다.

소유 구문의 주어에 대한 논의에서 NP₂가 주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소유 구문이 [NP₁에게 NP₂가 있다]에서 도출되었으며 소유주(NP₁)가 주제이고 소유물(NP₂)이 주어라고 본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을 비교해 보자.

- (20) a. 너(는) 어제 모임이 있었니? / ?너에게 어제 모임이 있었니?
 b. 선생님께서 오후에 회의가 있으시대. / ?선생님한테 오후에 회의가 있으시대.
 c. 지금 그 책(이) 어디(에) 있니? - 책상 위에. / 영희한테. / *영희가.

소유 구문 (20a, b)에는 NP₁에 ‘이/가’가 붙은 것이 자연스럽고, 처소를 묻는 질문 (20c)에 대한 답으로는 ‘에게/한테’만 가능하고 주격 조사가 붙은

16) 소유의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언어 유형을 HAVE-계열과 BE-계열로 나눌 수 있다. BE-계열의 언어에 속하는 한국어의 소유 동사는 ‘가지다’가 아니라 ‘있다’이다. ‘민수가 여동생이 있다’, ‘나는 책이 있다’의 의미로 ‘*민수가 여동생을 가지다’, ‘*나는 책을 가지다’와 같은 표현은 사용되지 않는다. 러시아어도 BE-계열에 속하는 언어이며 소유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로 *быть*가 사용된다.

‘영희가’는 쓸 수 없다. 한국어 문법에서 ‘에게, 한테’가 처소를 표현하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영희에게 책이 있다”에서의 ‘영희에게’는 ‘책상 위에 책이 있다’의 ‘책상 위에’와 같은 처소 표현으로 본다. 따라서 소유 구문의 전형은 [NP₁가 NP₂가 있다]이며 NP₁이 주어이고 NP₂는 보어로 분석한다.

우리말 ‘있다’의 사용과 관련하여, ‘있다’는 동사, 형용사, 보조동사로 쓰이는데 동사 ‘있다’는 ‘있는다, 있어라, 있자’로 활용하지만, 형용사는 그렇지 않다. 동사 ‘있다’의 높임말은 ‘계시다’이고, 형용사 ‘있다’의 높임말은 ‘있으시다’이다.¹⁷⁾ ‘깨어 있다’, ‘일하고 있다’에 사용되는 보조동사 ‘있다’의 높임말도 ‘계시다’이다. 그런데 형용사 ‘있다’의 용례를 보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있다’ 항목에서 형용사 ‘있다’의 용례로 “방 안에 사람이 있다”, “책상 위에 책이 있다”, “그는 서울에 있다”, “좋은 일이 있다” 등의 문장이 제시되어 있다. 이 문장들을 존재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 (21) a. 방 안에 사람이 있다. → 방 안에 할아버지께서 계신다.
 b. 그는 서울에 있다. →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계신다.
 c. 나는 좋은 일이 있다. → 할아버지께서는 좋은 일이 있으시다. / *계신다.
 d. 그는 딸이 있다. → 할아버지께서는 손자가 있으시다. / *계신다.

위의 예에서 왼쪽 예문들은 모두 형용사 ‘있다’가 사용된 예이다. ‘(어디)에 있다’를 표현하는 (21a, b)는 ‘있다’의 높임말로 ‘계시다’가 사용되는데, ‘(무엇)이 있다’를 표현하는 (21c, d)의 경우에는 ‘계시다’가 사용될 수 없다. 높임말의 사용에서 보이는 특성을 감안하여 형용사 ‘있다’가 표현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존재 의미와 소유 의미의 두 가지 용법으로 세분할 수 있다.

- (22) a. 민수는 책이 있다(/ *있는다 / *있어라).
 b. 할아버지는 돈이 있으시다(/ *계신다 / *계십시오).
 c. 민수는 집에 있다(/ 있어라).
 d. 할아버지는 집에 계신다(/ 계십시오).

17) 국립국어원이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있다’ 항목을 참조했다.

위의 예에서 ‘있다’가 소유의 의미를 갖는 (22a, b)에서는 ‘있다, 있어라’ 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높임말이 ‘있으시다’이다. ‘있다’가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는 (22c, d)에서는 2인칭 명령법으로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와 같은 의미로 “민수는 집에 있어라”가 사용될 수 있고 높임말로 ‘계시다’가 사용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있다’의 의미를 기준으로 소유를 표현하는 ‘있다’와 존재를 표현하는 ‘있다’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유 동사 - 있다1’, ‘존재 동사 - 있다2’로 제시한다.¹⁸⁾ 이에 대응되는 부정은 ‘없다1’과 ‘없다2’가 될 것이다. ‘없다1’의 높임말은 ‘없으시다’이고 ‘없다2’의 높임말은 ‘안 계시다/계시지 않는다’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전형적인 소유 구문의 문형을 [NP₁가 NP₂가 있다1/없다1]로 나타낼 수 있다.

러시아어의 소유 구문은 소유주(NP₁)가 전치사구 ‘у + 생격’으로 표현되고, 소유물(NP₂)이 주격으로 표지된다. 러시아어에서 소유를 표현하는 동사는 *быть*이며 현재시제에서 *есть*가 쓰인다. 한국어와 달리 러시아어는 ‘있다’의 부정 ‘없다’를 표현하는 구문이 긍정문과 다른 구조를 갖는다. 긍정문은 소유물에 해당하는 명사(NP₂)가 주격으로 표지되지만, 부정문에서는 ‘없다(нет)’의 대상역을 갖는 명사(NP₂)가 반드시 생격으로 쓰여야 한다.

- (23) a. У меня есть брат.
 b. У Ивана есть книга.
 c. У меня нет брата. / *У меня нет брат.
 d. У Наташи нет книги. / *У Наташи нет книга.

*есть*가 사용되는 긍정문은 과거와 미래시제에서 *быть* 동사가 주격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 변화한다. 러시아어는 주격 명사가 문장의 문법적 주어이고 동사는 언제나 주격 명사에 의해 통제되어 성과 수에 따라 변화된다. ‘нет’가 사용되는 부정문에는 주격 형태로 나타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는 주어와 일치관계에 놓일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동사는 중성 단수 형태로 쓰인다. 따라서 과거시제는 *не было*, 미래시제는 *не будет*만 쓰인다.

18) 목정수(2017), 유현경(1996) 등이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있다’를 ‘있다1’, ‘있다2’로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있다, 계시다, 없다’는 동사의 특징과 형용사의 특징을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동사성과 형용사성을 모두 갖는 ‘존재사’라는 독립된 범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24) a. У меня не было брата.
 b. У Ивана не было книги.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전형적인 소유 구문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표 2] 소유 구문

	한국어		러시아어	
문형	[NP ₁ 가 NP ₂ 가 있다1] [NP ₁ 가 NP ₂ 가 없다1]		[У NP _{1-생격} есть NP _{2-주격}] [У NP _{1-생격} нет NP _{2-생격}]	
명사구	NP ₁	NP ₂	NP ₁	NP ₂
통사 역할	주어	보어	상황어	주어
의미역	소유주	대상	소유주	대상
격	이/가 (은/는)	-이/-가	У+생격(У кого)	긍정문 - 주격 부정문 - 생격
예문	철수는 여동생이 있다/없다. (높임말: 있으시다/없으시다)		У Виктора есть сестра. У Виктора нет сестры.	

소유 구문에 서술어 ‘많다, 적다’ 등의 수량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한국어는 ‘나는 책이 많다’ 처럼 일반적인 소유 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러시아어는 수량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용되면 일반적인 소유 구문과는 다른 통사적, 형태적 구조를 갖는다. ‘много, мало, немного’ 등의 단어가 사용되면 NP₂가 복수 생격으로 쓰인다. 현재시제에서 есть는 사용되지 않고 과거시제에서는 было, 미래시제에서는 будет가 사용된다.

- (25) a. У меня ø много книг.
 b. У Ивана было много карандашей.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 처소 구문은 의미적,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세 유형의 구문은 문장을 구성하는 세 개의 의미 구성 요소를 공유한다. 존재 구문은 존재를 표현하는 존재 동사,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서구, 그 장소에 존재하는 대상을 의미 구성 요소로 가진다. 러시아어의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은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갖는다. 소유주와 처소서구가 전치사구로

표현되고 존재하는 대상이 주격 명사로 표현된다. 소유주가 [+유정성] 자질을 갖는 명사이면 ‘y + 생격’으로 나타나는 소유 구문이고(26a), [-유정성] 자질을 가지면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구로 나타난다. 처소어구는 다양한 전치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고, 이 때 NP₁는 전치사가 지배하는 격으로 표지된다. 존재 구문의 *есть*는 존재 상태를 표현하는 자동사 *лежать, стоять, сидеть*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26b~e). 어순은 처소 표현이 존재 동사 앞에 오고 존재하는 대상은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6) a. У Ивана есть машина.
 b. За домом есть сад.
 c. В комнате есть / стоит телевизор.
 d. На столе есть / лежит книга.
 e. Под столом сидит кошка.

한국어는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이 서로 다른 형식을 갖는다. 소유 구문에서 소유주는 주격형 명사로 쓰이지만 존재 구문에서 처소어구는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서 쓰인다. 따라서 소유 구문은 이중주어 구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존재 구문은 ‘이/가’ 표지를 갖는 주어가 하나이다. 존재 구문에서 어순은 처소어가 주어에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휘적인 차이도 보인다. 소유 구문에 사용되는 ‘있다1’의 존대말은 ‘있으시다’이고, 존재 구문에 사용되는 ‘있다2’의 높임말은 ‘계시다’이다.

- (27) a. 책상 위에 책이 있다/없다.
 b. 교실에 학생들이 있다.
 c. 방에 할아버지가 계신다/안 계신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전형적인 존재 구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3] 존재 구문

문형	한국어		러시아어	
	[NP ₁ 에 NP ₂ 가 있다2] [NP ₁ 에 NP ₂ 가 없다2]		[전치사+NP ₁ есть NP ₂ -주격] [전치사+NP ₁ нет NP ₂ -생격]	
명사구	NP ₁	NP ₂	NP ₁	NP ₂
통사 역할	부사어	주어	상황어(처소)	주어(긍정문)
의미역	처소	대상	처소	대상
격	-에	-이/-가	전치사 + 사격	긍정문 - 주격 부정문 - 생격
예문	방에 철수가 있다/없다. (높임말: 계시다/안 계시다)		В комнате есть телевизор. На столе есть книга. На столе нет книги.	

존재 구문과 처소 구문은 동일한 의미 성분들로 구성되지만 어순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처소문은 주어(가) 처소 표현에 선행한다. 한국어 처소 구문에서 장소를 표현하는 명사에 처소 부사격 조사 ‘에/에서’가 붙어 쓰인다. 처소 표현에 [+유정성] 자질을 갖는 명사가 사용된다면 조사 ‘에게/한테’가 사용된다.

- (28) a. 책상은 교실에 있다.
b. 할아버지는 방에 안 계신다.
c. 너의 책은 나한테 있다.

처소 구문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소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주어는 일반적으로 주제화 표지 ‘은/는’을 갖는다. ‘할아버지가 방에 계신다’는 존재 구문과 처소 구문으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방에 계신다’는 처소 구문으로만 해석된다.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은 주제화 표지 ‘은/는’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는 담화 층위에서 어순보다 억양이나 조사의 사용이 의미 변별력이 더 크다.

러시아어의 처소 구문은 대상과 그 대상이 소재하는 장소를 표현하는 처소어구로 구성된다. 현재시제에서 동사 *есть*는 사용되지 않고, ‘(어디)에 있다’를 의미하는 동사 *находиться*가 사용될 수 있다. 처소어에 사용되는 명사가 [+유정성] 자질을 갖는 경우에는 ‘у+кого’ 구문이 쓰인다.

- (29) a. Где книга? - Книга ∅ на столе. / Книга ∅ у Маши.
- b. Где Антон? - Антон ∅ дома.
- c. Где ваш дом? - Мой дом (находится)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 d. Где (находится) станция метро?

[표 4] 처소 구문

	한국어		러시아어	
문형	[NP ₁ 은 NP ₂ 에 있다2]		[NP _{1-주격} ∅ 전치사 + NP _{2-사격}]	
명사구	NP ₁	NP ₂	NP ₁	NP ₂
동사 역할	주어	부사어	주어	상황어(부사)
의미역	대상	처소	대상	처소
격	은/는	[-유정성] 에 [+유정성] 에게/한테	주격	[-유정성] 전치사 + 사격 [+유정성] у + кого
예문	철수는 방에 있다. 책은 책상 위에 있다. 너의 연필은 나한테 있다.		Антон ∅ в комнате. Книга ∅ на столе. Твой карандаш ∅ у меня.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학습자들은 소유 구문, 존재 구문, 처소 구문에 사용되는 동사 **быть**의 현재시제형 **есть**의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현재시제에서 **есть**의 사용이 단순한 생략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에서는 **есть**가 사용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지만(30a, b), 수량 구문, 위치 구문, 속성 표현 구문에서는 현재시제에서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다(30c~f). 과거시제와 미래시제에서는 모든 경우에 **быть**의 변화형이 사용된다.

- (30) a. У меня (есть) брат.
- b. На столе (есть) книга.
- c. *Антон есть дома.
- d. *У меня есть много книг.
- e. *Книга есть на столе. (← Где книга?에 대한 대답으로)
- f. *У него есть красивые глаза.

비모어 러시아어 학습자들에게서 위의 (30c~f)와 같은 오류가 빈번히 발생한다. 학습자들은 “У меня есть брат”, “На столе есть книга” 등의 문장을 통해 *есть*가 소유와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며 우리말의 ‘있다’에 해당한다고 배운다. 그래서 “안톤은 집에 있다”, “책이 책상 위에 있다”, “나는 책이 많다” 등의 문장을 러시아어로 옮길 때 *есть*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다.

동일한 형태의 *быть*가 현재시제에서 왜 어떤 경우에는 사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되면 안되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быть*를 하나의 어휘로 제시하고 다양한 용례들에서 *быть*의 의미와 구문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есть*가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구문을 개별적으로 다루면서 현재시제에서 *есть*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미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быть* 동사를 통사-의미적인 용법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제안한다.

러시아어 사전에서는 *быть* 항목에서 자립동사로서의 의미와 보조동사 또는 연사로서의 의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Апресян(1992)은 *быть*를 네 개로 세분하여 *БЫТЬ1* - 연사, *БЫТЬ2* - 위치 동사, *БЫТЬ3* - 존재 동사, *БЫТЬ4* - 소유 동사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과 Апресян의 구분을 기반으로 외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быть*를 하위분류화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문장에서 연사로 사용되거나 실질적 내용을 갖지 않고 시제나 서법 등의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БЫТЬ1*과 ‘находиться(~에 있다), иметься(있다), существовать(존재하다)’ 등의 실 의미를 갖는 *БЫТЬ2*로 구분한다. Апресян의 4분법에서 존재 동사 *быть*와 소유 동사 *быть*는 문장에서의 쓰임새나 현재시제 *есть*의 사용에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위치 동사 *быть*는 현재시제에서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소유 동사 및 존재 동사와 통사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존재 동사와 위치 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하되 소유/존재 동사의 용법과 위치 동사의 용법으로 하위 분류한다. 현재시제에서 *есть*의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быть*의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БЫТЬ 동사의 하위 분류

	БЫТЬ1	БЫТЬ2	
		БЫТЬ2-1	БЫТЬ2-2
주요 기능 및 의미	연사(являться), 시제, 서법 표현	находиться (위치)	иметься (소유) существовать (존재)
현재시제형	∅	∅	есть (소유/존재 구문) ∅ (속성 구문)

연사로서의 БЫТЬ1은 학술적인 정의를 내리거나 강조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시제에서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다. 소유/존재 동사는 현재시제에서 일반적으로 есть가 사용되며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다. 연사 БЫТЬ1의 부정은 не에 의해 표현되고, 소유/존재 동사의 현재시제 형태 есть의 부정은 нет로 표현된다. 위치 동사로서의 быть는 특정한 대상(주어)의 공간적, 시간적 위치를 표현하며 현재시제에서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다. “Антон ∅ дома”, “Книга ∅ на столе”는 주어의 공간적 위치를 표현하고, “Когда у вас ∅ экзамен?”, “Завтра у меня ∅ экзамен”은 대상의 시간적 위치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быть의 현재시제 형태 есть가 사용되는 구문의 부정에는 нет가 사용되고 무형형태 ∅가 사용되는 구문의 부정에는 не가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есть와 нет, ∅와 не가 항상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실의미 동사 БЫТЬ2의 현재시제형 ∅가 중의성을 가지며 때로는 нет에, 때로는 не에 대응된다. 예를 들면, 특정한 주어의 처소를 묻는 “Где Антон? Он дома?”에 대해 부정으로 답할 때 “Его нет дома”와 “Он не дома”가 모두 가능하다. 단어와 문장의 의미로 본다면 “Антон дома?”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부정문은 “안톤은 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Антон не дома(, а в школе)”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안톤이 집에 없다”는 존재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Антонa нет дома”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화용론적으로 질문과 대답 사이에 의미의 교체가 발생한 것이다. 즉, 안톤의 처소를 묻거나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해당 장소에 안톤의 존재 여부로 답을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처소 구문에서 존재 구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Антон был на море”에

대응되는 부정은 이론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 (31) a. Анто́на не было на море.
 b. Анто́н не был на море.
 c. Анто́н был не на море(, а в горах).

(31a)는 안톤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 해당 장소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존재 부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31b)는 안톤이 바다에 ‘간 적이 없다’ 또는 ‘가지 않았다’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주어의 행위 사실이나 상태에 대한 부정이다.¹⁹⁾ (31c)는 안톤이 소재했던 장소가 바다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 부정 문장이다. 이처럼 위치 동사로서의 현재시제형 \emptyset 을 갖는 구문이 부정될 때 화용론적인 요인에 의해 존재 부정을 표현하는 *нет*, 또는 동사구 부정을 표현하는 *не*에 대응될 수 있다.

존재 동사와 소유 동사로서의 *быть*는 현재시제에서 *есть*가 사용되고 부정 문에서는 *нет*가 사용된다. 그러나 현재시제에서 항상 *есть*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시제에서 *есть*의 사용은 의미-화용론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 아래의 예를 비교해 보자.

- (32) a. У него есть седые волосы. (그는 흰 머리가 있다.)
 b. У него \emptyset седые волосы. (그는 백발이다.)
 c. У неё есть красивое платье. (그녀는 예쁜 드레스가 있다.)
 d. У неё (/На ней) \emptyset красивое платье. (그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다.)

위의 예에서 *есть*가 사용된 (32a)와 (32c)는 소유주에 귀속되어 있는 대상 (NP₂)의 소유 또는 존재 사실을 표현하는 구문이다. 이 경우 NP₂가 ‘부분’의 의미를 갖는다. 즉, (32a)에서 소유주의 머리카락(волосы) 중에 흰 머리(седые волосы)가 일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32c)에서는 소유주가 소유한 옷 중에

19) Мельчук(2023)은 “Отец был на море”가 중의성을 갖는 이유는 두 개의 다른 어휘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부정문 “Отец не было на море”에 대응되는 경우는 존재 동사 *БЫТЬ*가 사용된 것이고, “Отец не был на море”에 대응되는 경우는 위치 동사 *БЫТЬ*가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예쁜 드레스가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есть*가 사용되지 않은 (32b)와 (32d)는 소유주의 속성이나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장소에서의 상황을 표현한다. 아래의 예들도 *есть*의 사용이 의미-화용론적으로 ‘부분성’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a. У него *есть* нож. (그는 칼이 있다.)

b. Посмотри, у него в руках \emptyset нож. (저것 봐, 그가 손에 칼을 들고 있어.)

(33a)는 그가 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달리 말해 그의 소유물 중에 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그의 소유물이 전체 집합이 되고 칼이 그 일부를 구성하므로 *есть*가 사용된다. 그러나 (33b)는 특정한 순간에 그의 손에 있는 것이 칼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이런 경우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현재시제에서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다. ‘부분성’ 개념은 공간에도 적용된다.

(34) a. Перед домом *есть* пруд. (집 앞에 연못이 있다.)

b. Перед домом \emptyset пруд. (집 앞은 연못이다.)

*есть*가 사용된 (34a)는 집 앞의 공간이 연못보다 큰 경우이고, (34b)는 집 앞의 공간이 연못보다 크지 않아서 연못 이외의 다른 객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²⁰⁾ 즉, 연못이 ‘집 앞’이라는 주어진 공간의 일부인 경우 *есть*가 사용되지만,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 (34b)는 주어진 공간의 상황이나 특성을 표현한다.

БЫТЬ₂가 사건이나 상황의 존재나 발생을 나타내는 경우, 사건은 주어진 공간에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집합의 요소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공간에 속한 전체집합의 일부분으로 여겨질 수 없다. 또한 주어진 공간에서

20) Селиверстова(1990)에 따르면 공간의 규모나 기능에 따라서 *есть*의 사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주어진 공간이 그 속에 위치한 객체보다 크다면 *есть*가 사용될 수 있지만, 공간의 규모가 객체보다 작다면 *есть*가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주어진 공간이 객체의 보관 장소이거나 거주지, 또는 그 공간 내에서 객체의 위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есть*가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Селиверстова(1990:77)를 참조하라.

특정한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은 부분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적으로 *есть*가 사용되지 않고, 속성이나 특정 조건에서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해석된다.

- (35) a. У Виктора \emptyset грипп. (빅토르는 독감에 걸렸다.)
 b. Завтра у Ивана \emptyset экзамен. (내일 이반은 시험이 있다.)
 c. У этого дома \emptyset две двери. (이 집은 문이 두 개이다.)
 d. По всей стране \emptyset засуха. (전국에 가뭄이 들었다.)

의미적으로 수량적 부분성 또는 시공간적 부분성의 의미 기준과 무관하게 *есть*가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객체나 사건의 존재 사실을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존재 사실에 대한 강조의 경우에는 *есть*가 사용된다. 그리고 ‘있다’와 ‘없다’의 대립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есть*가 사용된다.

- (36) a. Сегодня у вас *есть* экзамен? - Да, *есть*.
 b. Чай у нас *есть*, а вот сахару нет.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특성과 같은 비물질적인 장점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есть*가 사용될 수 있다.

- (37) a. У него *есть* сердце. (= У него доброе сердце.)
 b. У неё *есть* вкус. (= У неё хороший вкус.)

위 (37)의 예문은 심장과 취향이 ‘실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물질적인 특성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부정문은 부정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У него нет сердца”와 “У неё нет вкуса”는 “У него недоброе сердце”와 “У неё плохой вкус”를 의미한다.²¹⁾ 사람의 부정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경우는 “У него \emptyset глупость”와 같이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다.

21) Н. Д. Арутюнова и Е. Н. Ширяев, *Русс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Бытийный тип* (М.: Русский язык, 1983), с. 16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быть** 동사는 그 의미에 따라 현재시제에서 **есть**의 사용 여부, 대응되는 부정문의 의미적, 통사적인 특징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быть**는 실의미를 갖는 않는 연결사 **БЫТЬ1**과 실의미를 갖는 동사 **БЫТЬ2**로 구분될 수 있으며, **БЫТЬ2**는 위치 동사, 소유/존재 동사로 세분될 수 있다. 연사 구문, 속성 구문, 위치 구문에서는 현재시제에서 **есть**가 사용되지 않고,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에서는 **есть**가 사용된다. 그리고 현재시제에서 **есть**의 사용은 의미-화용론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есть**의 사용을 허용하는 요인은 존재 사실에 대한 질문과 답이나 존재 사실의 강조, 유무의 대립, 사람의 긍정적인 심리적, 정신적 특성, 화용론적인 수량적, 시공간적 부분성 등이 있다.²²⁾ 반면 **есть**의 사용을 금지하는 화용론적인 조건으로는 부분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나 사건, 사람의 부정적인 정신적, 심리적 특성 등의 요인이 있다.

3. 심리 형용사 구문

[NP₁는 NP₁-가 서술어(심리 형용사)] 유형

“나는 영희가 좋다”,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유형의 심리 형용사 구문의 의미 구성 요소는 1) 심리 상태를 기술하는 서술어(심리 형용사), 2)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주체(NP₁), 3) 심리 상태를 야기하는 대상/자극(NP₂)이다. 한국어의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구성 요소들의 의미적 역할은 NP₁은 경험주이고 NP₂는 서술어가 기술하는 감정의 대상이다. 통사적으로 NP₁은 주어이고, NP₂는 서술어로 사용되는 심리 형용사의 보어이다. 이 유형의 구문에는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좋다, 싫다, 무섭다, 기쁘다, 슬프다, 그럽다, 재미있다, 지루하다, 즐겁다’ 등이 쓰인다.²³⁾

22) ‘사랑’, ‘이해’, ‘의지’ 등의 추상적인 개념은 어떤 공간에 실재하는 객체가 아니므로 시공간적인 부분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개념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구문은 현재시제에서 **есть**가 사용된다. ‘На свете счастья нет, но есть покой и воля’ [А. Пушкин], ‘Есть ещё одна логичес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예문은 Мельчук(2023)에서 인용한 것이다.

23) 한국어의 심리 형용사 구문은 현재시제에서 주어에 대한 인칭제약이 있다. 현재시제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만 가능하다. 2인칭 주어는 ‘너는 고향이 그럽니?’ 처럼 의문문에서만 가능하고, 3인칭 주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민수가 고향이 그럽대’ 처럼 3인칭 주어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인용에는 심리 형용사가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시제에서 3인칭 주어 사용되면 ‘그는 거미를 무서워한다’, ‘민수는 고향을 그리워한다’ 처럼 타동사 구문이 사용된다. 과거와 미래시제에는 주어의 인칭제약이 없다.

한국어 심리 형용사 구문의 러시아어 대응 표현을 설정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문장으로 형식화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주어이고, 감정의 대상(자극, 원인)이 보어가 된다. 이에 비해 러시아어는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주격으로 쓰여 문법적 주어가 되고 감정을 느끼는 주체는 경험주 의미역을 갖는 여격으로 표현된다. 통사 구조로 보면, 주격 명사가 주어이고 여격 경험주는 형용사의 보어가 된다. 이 경우 형용사는 단어미형이 사용된다.²⁴⁾

- (38) a. 나는 이 책이 재미없다.
b. Эта книга мне неинтересна.

이러한 구문적인 차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 사전에서 ‘무섭다’, ‘재미있다’와 이에 대응되는 ‘страшный(무서운)’, ‘интересный(재미있는)’ 항목을 찾아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보자.²⁵⁾

- (39) ‘무섭다’와 ‘재미있다’의 사전적 정의
a. ‘무섭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꺼려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나는 데가 있다.
b. ‘재미있다’: 아기가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다.

- (40) ‘страшный’와 ‘интересный’의 사전적 정의
a. ‘страшный’: Вызывающий, внушающий чувство страх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b. ‘интересный’: Возбуждающий интерес. (흥미를 유발하는)

24) 러시아어 형용사는 장어미형과 단어미형을 갖는다. 장어미형은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서술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단어미형은 서술어로만 사용된다. 서술어로 사용되는 형용사가 보어를 갖는 경우는 단어미형만 사용된다.

25) 러시아어 사전은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Ожегова』, 『Малы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Кузнецова』,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Ушакова』,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Ефремовой』 등을 참조했다. 한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을 참조했다.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어는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고, 러시아어는 누군가에게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달리 말해, 한국어 심리 형용사 구문은 ‘주어가 무엇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깔려있고, 러시아어 심리 형용사 구문은 ‘무엇 또는 어떤 상황이 누군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통사적으로 구문 구조에 반영된다. 한국어 심리 형용사 구문은 심리 상태의 경험주가 주어로 쓰이고, 대상이 보어로 표현된다. 이에 대응되는 러시아어 구문에서는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대상이 주격 명사구로 표현되고,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주체, 즉 경험주는 여격(кому) 또는 для + кого(‘~에게는, ~로서는’)의 구조로 표현된다. 러시아어에서 이런 구문 구조를 갖는 형용사는 интересный, скучный, печальный, страшный, приятный, смешной 등이 있다.²⁶⁾ 아래의 러시아어 예문과 괄호 안의 우리말을 비교해 보라.

- (41) a. Мне печальна его судьба. (나는 그의 운명이 슬프다.)
 b. Смерть мне не страшн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c. Всё это ему было не приятно. (그는 이 모든 것이 불쾌했다.)
 d. Математика для меня скучна. (나는 수학이 지루하다.)
 e. Мне были смешны его слова. (나는 그의 말이 우스웠다.)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요인이 주격 명사로 제시되지 않고 동사 미정형이나 공간적 또는 시간적 상황을 나타내는 어구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부사가 서술어로 사용된다. 이 경우 상황어는 전치사구나 부사어로 표현되고 심리 상태의 경험주는 여격으로 표지된다. 이런 유형의 문장은 주격으로 나타나는 문법적 주어가 없는 무인칭문 구조를 갖는다. 무인칭 구문에서 시제를 표현하는 быть는 과거시제에서 было가 사용되고 미래시제에서는 будет가 사용된다.

- (42) a. На уроке мне было скучно. (나는 수업이 지루했다.)

26) печальный, скучный, грустный, весёлый 등의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의 의미와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의 의미를 모두 갖는다. 일례로 печальный의 사전적 의미는 ‘испытывающий печаль, грустный’, ‘вызывающий сожаление, грусть’로 정의되어 있다. 이런 경우 주격 주어와 함께 사용되어 주어의 심리적 특징이나 속성을 표현하는 ‘Я печальна’와 같은 구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

- b. Ему было весело с ней.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다.)
- c. С умным человеком говорить всегда приятно.
(지혜로운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
- d. Нам здесь было хорошо.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았다.)
- e. Мне грустно слушать эту песню.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 슬프다.)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의 술어로 쓰이는 술어 부사 구문에서 감정이나 상태의 원인을 표현하기 위해 ‘за + 대격’, ‘из-за + 생격’ 등의 전치사구가 사용된다.

- (43) a. Мне стыдно за свою слабость. (나는 자신의 나약함이 부끄럽다.)
b. Мне печально из-за тебя. (나는 너 때문에 슬프다.)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필요하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등의 형용사도 [NP₁는 NP₁가 중요하다]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이 경우 NP₁은 주어이고 NP₂는 형용사의 보어다.

- (44) a. 영희는 돈이 필요했다.
b. 나는 약속이 중요하다.
c. 민수는 동생이 누구보다 소중했다.

이에 대응되는 러시아어 구문에서 평가의 감정을 가지는 주체가 경험주로서 여격으로 표현되고 대상이 주격으로 나타난다.

- (45) a. Мне важно твоё мнение. (나는 너의 의견이 중요해.)
b. Вы мне очень дороги. (나는 당신이 매우 소중합니다.)
c. Ему нужен отдых. (그는 휴식이 필요하다.)

[NP₁는 NP₂가 좋다/마음에 들다]에 대응되는 구문은 нравиться 동사 구문이다. нравиться 동사는 감정의 대상이 주격으로 쓰여서 문장의 문법적 주어

가 되어 동사의 활용 형태를 결정한다. 감정을 경험하는 주체는 여격으로 나타나서 문장의 의미적 주어의 역할을 한다.

- (46) a. Ты мне нравишься . (나는 네가 좋다.)
- b. Нам нравится этот дом. (우리는 이 집이 마음에 든다.)
- c. Ему не нравится сладкая пища. (그는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심리 형용사 구문과 이에 대응되는 러시아어 구문을 다음과 같은 문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6] 심리 형용사 구문(1)

	한국어		러시아어	
문형	[NP ₁ 는 NP ₂ 가 좋다] [NP ₁ 는 NP ₂ 가 무섭다]		[NP ₁ -여격 нравится NP ₂ -주격]	
			[NP ₁ -여격 형용사-단어미 NP ₂ -주격]	
			[NP ₁ -여격 술어부사 VP-inf./상황어]	
명사구	NP ₁	NP ₂	NP ₁	NP ₂
통사 역할	주어	보어	보어	주어/상황어
의미역	경험주	대상	경험주	대상
격	주격 (은/는)	이/가	여격	명사-주격(주어) 동사-inf. 전치사구, 부사어
예문	나는 이 옷이 마음에 든다. 철수는 수업이 지루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 платье. Ему было скучно на уроке. Мне приятно говорить с ней.	

이중주어 구문의 형식을 취하는 ‘그립다’, ‘걱정스럽다’, ‘부럽다’ 등의 심리 형용사가 보어를 갖는 구문이 러시아어에서 자동사 구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때 경험주는 주격으로 쓰여 문장의 주어이며, 감정의 대상은 자동사의 보어이다.²⁷⁾

27) 이러한 유형의 자동사 구문은 한국어의 [NP₁가 NP₂-를 그리워하다]와 같은 타동사 구문에도 대응된다.

(47) 자동사 구문

- a. Я боюсь тигров.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 b. Он скучал по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그는 부모님이 그리웠다.)
- c. Я беспокоюсь о своём брате. (나는 남동생이 걱정스럽다.)
- d. Она завидовала Нине. (그녀는 니나가 부러웠다.)
- e. Я горжусь своим сыном. (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
- f. Мы радовались успеху друга. (우리는 친구의 성공이 기뻐다.)

(48) 형용사 구문

- a. Я рад твоему успеху. (나는 너의 성공이 기쁘다.)
- b. Он был доволен результатом. (그는 결과가 만족스러웠다.)

러시아어에서 자동사나 형용사가 보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특정한 격이나 전치사구를 취하므로 구문 구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주어가 주격으로 사용되는 자동사 구문과 형용사 구문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표 7] 심리 형용사 구문(2)

명사구	한국어		러시아어	
	NP ₁	NP ₂	NP ₁	NP ₂
통사 역할	주어	보어	주어	보어
의미역	경험주	대상	경험주	대상
격	주격	-이/-가	주격	사격 전치사+사격
문형	[NP ₁ 는 NP ₂ 가 무섭다]		[NP _{1-주격} бояться NP _{2-생격}]	
	[NP ₁ 는 NP ₂ 가 그리다]		[NP _{1-주격} скучать по + NP _{2-여격}]	
	[NP ₁ 는 NP ₂ 가 부럽다]		[NP _{1-주격} завидовать NP _{2-여격}]	
	[NP ₁ 는 NP ₂ 가 부끄럽다]		[NP _{1-주격} стыдиться NP _{2-생격}]	
	[NP ₁ 는 NP ₂ 가 걱정스럽다]		[NP _{1-주격} беспокоиться о + NP _{2-전치격}]	
	[NP ₁ 는 NP ₂ 가 자랑스럽다]		[NP _{1-주격} гордиться NP _{2-조격}]	
	[NP ₁ 는 NP ₂ 가 기쁘다]		[NP _{1-주격} радоваться NP _{2-여격}]	
	[NP ₁ 는 NP ₂ 가 기쁘다]		[NP _{1-주격} рад NP _{2-여격}]	
	[NP ₁ 는 NP ₂ 가 만족스럽다]		[NP _{1-주격} доволен NP _{2-조격}]	

V. 결론

본 논문은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 유형 중에서 속성 구문, 소유 구문, 심리 형용사 구문을 대상으로 의미적, 통사적, 형태적 분석을 통해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주어(NP₁)+보어(NP₂)+서술어]를 갖는 단문으로 설정하고 각 유형의 전형적인 문형을 제시했다. 또한 이에 대응되는 러시아어의 문형을 형식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에서 이중주어 구문에 대한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두 언어의 문형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한국어와 러시아어 문장의 구조적 차이를 잘 드러내준다. 이중주어 구문과 러시아어 대응 구문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NP₁과 NP₂의 의미적 역할과 통사적 역할, 그리고 형태적 격 실현을 비교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8]은 이중주어 구문의 NP₁이 각 유형의 문장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표 8] 이중주어 구문의 NP₁

구문 유형		속성 구문	소유 구문	심리구문	통사적 역할
의미역		소유주/처소	소유주	경험주	
격 형태	한국어	주격	주격	주격	주어
	러시아어	У кого-чего В чём	у кого	кому	비주어

한국어는 NP₁의 의미역에 무관하게 모두 주격 표지가 있는 형태로 실현되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나 러시아어는 NP₁의 의미역에 따라 소유주인 경우는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 ‘у кого’ 구문, 의미역이 처소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구 또는 부사어가 사용되고, 심리 상태의 경험주를 표현하는 논항은 여격으로 실현된다.

이중주어 구문의 NP₂는 세 유형의 구문에서 대상 의미역을 갖는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모두 ‘이/가’ 표지가 붙어서 보어로 실현된다. 러시아어에서는 격이 모두 주격으로 표지되어 문장의 주어로 나타난다.

[표 9] 이중주어 구문의 NP₂

구문 유형	속성 구문	소유 구문	심리구문	통사적 역할
의미역	대상	대상	대상	
격 형태	한국어	이/가	이/가	보어
	러시아어	주격	주격	주어

위의 [표 8]과 [표 9]가 보여주듯이 두 언어 간의 비교 분석은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문장의 의미 구조를 통사 구조에 반영하는 방식이 다를음을 보여준다. 한국어는 문장 성분의 의미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통사적으로 [주어+보어+서술어]로 구성되는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춘 구조를 취한다. 이에 비해 러시아어는 의미역 구조가 통사 구조에 비교적 잘 반영되는 형태-통사적인 구조를 갖는다.

참고문헌

- 고영근, 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파주: 집문당, 2008.
- 고재설. “주격 중출문과 형용사의 내부 주어.” 『한국언어학회』, 제24권, 제4호. 1999.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체계 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권재일. 『한국어 문법론』. 파주: 태학사, 2012.
- 김건희. “형용사의 주격 중출 구문과 여격 주어 구문에 대하여.” 『한말연구』, 제13호, 2003.
- 김준한. “한국어 다중주어 구문 연구.” 『언어와 언어학』, 제54집, 2012.
-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박이정, 2014.
- 목정수.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 『어문연구』, 제44권, 제3호, 2016.
- 목정수. “서술절 설정에 대한 재론 - ‘서술절’ 개념 비판에서 ‘조개진 목적어’ 유형 정립까지.” 『국어학회』, 제87권, 2018.
- 목정수. 『한국어 구문 연구: 유형론적 접근』. 하남: 박이정, 2023.
- 박지순. “주격중출 구문의 문법과 의미 -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반교어문학회』, 제52집, 2019.
- 서정수. 『국어문법』. 서울: 집문당, 2013.
- 안명철. “이중주어 구문과 구-동사.” 『국어학』, 제38권, 2001.
- 안명철. “주격 중출 구문과 귀속역.” 『어문연구』, 제39권, 제4호, 2011.
- 연재훈. 『한국어 구문 유형론』. 파주: 태학사, 2011.
- 유현경. “형용사 구문의 주어에 대한 연구.” 『배달말』, 제37권, 2005.
- 유현경. “국어 문법에서의 “가” 보어 설정 문제 - 심리형용사 구문의 NP2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52권, 2010.
- 유현경. “주제어의 통사론적 해석.” 『국어학』, 제98집, 2021.
- 이연정. 『주어와 주어 교육』. 서울: 신구문화사, 2015.
- 이흥식.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역에 관하여.” 『비교문화연구』, 제59집, 2020.
- Babby, L. H. *The syntax of argument struc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Blake, B. J.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Brecht, R. & J. S. Levine eds. *Case in Slavic*. Slavica Publisher, 1986.

- Chafe, W.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Subject and Topic*, C. N. Li (ed.),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Croft, W. *Typology and universal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Croft, W. "Case marking and the semantics of mental verbs." *Semantics and the lexicon*, J. Pustejovsky (ed.), Dordrecht: Kluwer, 1991.
- Hyu-Yong Park. "On Korean Subject Case-marking Rules – Implication f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한국어교육』, 제19권, 제1호, 2008.
- Keenan, T. L.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Lehmann, W. P. *Syntactic typology: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Language*. Austin: University of Texas, 1978.
- Li, C. N.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Li, C. N. & S. A. Thompson.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Mel'čuk, I. A. "Towards a Definition of Case." *Case in Slavic*. Slavica Publisher, 1986.
- Mel'čuk I. A. "Russian U Y-a est'/- X Constructions." *Русский язык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No. 1 (37), 2019.
- Апресян Ю.Д. "Лексикографические портреты (на примере глагола БЫТ Б)."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ая информация*, Серия 2, No. 3, 1992.
- Арутюнова Н. Д. и Е. Н. Ширяев. *Русс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Бытийный тип*. Москва: Русский язык, 1983.
- Золотова Г. А. "Понятие личности/безличность и его интерпретации." *Russian Linguistics*. v. 24, 2000.
- Крылова О. 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й синтакси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Изд-во РУНД, 1992.
- Мельчук И. А. "Снова про глагол БЫТЬ - три новые лексемы и кое-что ещё." *Язык как он есть*.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к 60-летию Андрея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Кибрика). Ред.-сост. Т. И. Давидюк, И. И. Исаев,

- Ю. В. Мазурова, С. Г. Татевосов, О.В. Федорова. Москва: Буки Веди, 2023.
- Пешковский А. М.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ебн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56.
- Пулькина И. М. и Е. Б. Захава-Некрасова. Учебник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студентов-иностранцев. Москва: Русский язык, 1977.
- Рудницкая Е. Л. “Особенности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труктуры (актуального членения) в предложениях со стативными предикатам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No. 4, 2005.
- Селиверстова О. Н. *Контрастивная синтаксическая семантика: Опыт описания*. Москва: Наука, 1990.
- Шведова Н. Ю. (гл. ред.).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 2. Москва: Наука, 1980.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검색일: 2024.11.10).

Abstract

On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and its Russian Equivalents

Younsoo, Kim

This study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yntactic, morpholog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and their Russian equivalents and explores effective ways to utilize them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Korean and Russian, which belong to different types of languages, show great differences in morphology and syntax. One of them is the way in which the subject of a sentence is expressed. In Korean, constructions in which two or more elements appear in the nominative case for a predicate in a construction. This type of constructions, called a ‘double subject construction’ or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 is very common.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This type of constructions is very unique both morphologically and syntactically. This makes these constructions difficult for foreign learners of Korean. This paper studi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three types of constructions: the state-property type, the possessive adjective type, and the psychological adjective type. This paper analyzes the syntactic structure of these types of constructions as consisting of a subject, complement, and predicate, and presents each type of construction as a formalized sentence structure and presents the corresponding Russian construction in a formalized for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ntence patterns of the two languages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 Korean and Russian formalize semantic structures into sentences. When syntactically realizing the semantic role structure of sentence elements, Korean exhibits formal completeness with the structure of ‘subject + predicate + predicate’. In contrast, Russian adopts a form in which sentence elements are morphologically and syntactically realized by reflecting the semantic role structure.